

보도시점 2024. 3. 14.(목) 9:30 배포 2024. 3. 14.(목) 8:30

##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

-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
-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
- ✓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3월 14일(목),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26일(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기관투자자와 밀접히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24.3.14.(목) 09:3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STIC Investments, 신한라이프, 한화투자증권

##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①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③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기관투자자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에 대한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다고 밝히며, 동지수를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연기금, 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Comply or Explain)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참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보도자료 6페이지)

## <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하에 한국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 중인 신규지수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예: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어떤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될지 시장의 관심이 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3분기까지 지수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참석자 주요 발언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는 “오늘 논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더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점 센터장은 “일본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업 밸류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 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의 밸류업 노력(‘자본비용·주가를 고려한 경영실현’ 참여독려)까지의 일련의 과정속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ESG기준원 심인숙 원장은 “여러 참석자분들의 의견처럼 실질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ESG기준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끝.

담당 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02-2100-2644)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1)
< 협조 >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책임자	본부장	오덕교	(02-6951-3844)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TF	책임자	부 장	윤재숙	(02-3774-4030)
		담당자	팀 장	황창기	(02-3774-4031)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박명우	(051-662-2360)
		담당자	팀 장	양성영	(051-662-237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2-3145-7570)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자	실 장	이효섭	(02-3771-0650)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 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과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기준원이 발간('17.6월)

※ [참고] 스튜어드십 코드 7개의 원칙 주요 내용

- [원칙1]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원칙2]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정·공개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5]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용·사유 공개  
 [원칙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원칙7]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된 [원칙3]에 대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추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lt;내용&gt;</p> <p>(중략) 기관투자자자는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다양한 비재무 요소 중 회사의 중장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회사를 검토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p>	<p>&lt;내용&gt;</p> <p>-----</p> <p>-----</p> <p>-----</p> <p>-----</p> <p>-----</p> <p>(추가) 예컨대,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현황 진단 → 계획 수립 → 이행 및 평가)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p>